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36. 아디오스 (Adios), 톨레도

마드리드행 버스를 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올 때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대신 골목길을 돌아 걸어 내려가기로 했다.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생각이 아련하게 밀려들었다. 천천히 걸어 가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이 고적한 중세 도시의 분위기를 한껏 음미하고 싶었다.

톨레도에 도착 한 후로 금세공을 하던 기념품 가게 외에는 선물가게 같은 곳에 들러 볼 기회가 없었는데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싸구려 기념품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와 와중에 아주 작은 기념품 가게가 눈에 띄었다. 웬지 모르지만 마음이 끌려서 들어가 보았다.

기념품 가게는 아주 작은 규모였다. 골목길 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모습으로 물건도 별로 없고 손님도 없이 한산했다. 가게 안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생긴 청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 까만 눈썹, 까만 눈동자에 상대방을 꿰뚫어 버릴 듯 깊은 눈빛을 한 스페인 미남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수에 찬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했다.

그가게에서 우리는 작은 기념품을 하나 샀다. 톨레도구시가지를 형상화한 것인데 조잡스럽지 않고 특히 톨레도 강철을 의미하듯 쇠로 만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값은 별로 비싸지 않았다. 계산을 하는데도 미남 청년은 한마디 말도 없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고 물건을 잘 싸 주었다. 이상하리만큼 작고 조용한 그 기념품 가게를 나와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마치 꿈을 꾸고 나온 듯했다. 우리가 나오고 나서 그가게가 혹시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하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구 시가지를 내려와 버스를 타기 전에 우리는 마르시판 가

계에도 들렀다. 마르시판은 아몬드 가루에 꿀이나 설탕, 계란 흰자 등을 섞어 만든 과자인데 톨레도에서는 12세기부터 수녀님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고, 과일이나 견과류도 첨가해 만드는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한다. 마르시판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곳은 산 클레멘테 수녀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 밀가루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 아몬드 가루로 마르시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근이 들었는데 달콤한 과자를 만들어 나누어 주다니 약간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이야기이지만 마르시판 과자의 기원이라고 하니 믿는 수밖에 없다.

마르시판 과자의 원조인 산 클레멘테 수녀원보다 상업적으로 더 유명한 상점은 산토 토메 제과점이라고 했다. 7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서 깊은 마르시판 제과점이었다. 가는 길에 산토 토메 제과점을 발견한 우리는 얼른 들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마르시판 과자 구경을 했다. 알록달록한 색깔에 갖가지 모양의 마르시판 과자들은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뻐다. 선물용으로 골고루 담은 박스도 있었지만 여행 내내 들고 다니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실용적으로 당장 우리가 먹을 것으로 조금만 샀다.

구 시가지를 벗어나 성곽 구경을 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내려와 관광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히시엔다 데 까르테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관광객들 대부분이 돌아와 이미 버스에 타고 있었다. 나머지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산토 토메 제과점에서 사 온 마르시판 과자를 먹었다. 달콤하고 고소했다. 생각해 보니 아침 식사 후에 톨레도에 도착한 후 구경에 정신이 팔려 점심도 먹지 못했다. 허기가 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법 배고픔을 달래 주어서 중세시대 기근이 들었을 때 마르시판 과자를 만들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수긍이 되어 웃음이 나왔다.

관광객 인원과 숫자를 다 확인한 후 버스는 마드리드를 향해 출발했다. 오후는 저물었고 이제 곧 어두워질 것이다. 톨레도는 그렇게 뒤로 떨어져 갔다. 짧은 하루 머물렀을 뿐인데 마치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떠나가는 기분이었다. 개인적으로 엘 그레코의 자취를 찾아 왔었는데 천년 고도를 만나 그 역사의 향기에 한껏 취해서 돌아가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오래 마음에 남을 선물을 받아간다 생각하는 동안 R은 엄마의 충실한 동행자 역할을 잠시 멈추고 내 어깨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 ★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회사를 취급하여 손님께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땡큐 THANK YOU CHICKEN

NEW **찜닭** 커플사이즈 \$26.99
패밀리사이즈 \$39.99

순살치킨 후라이드/양념/간장 \$19.99

콤보스페셜

A	찜닭 + 우동	\$36	\$48
B	찜닭 + 콘치즈	\$36	\$48
C	찜닭 + 모듬튀김	\$39	\$51
D	찜닭 + 오징어	\$42	\$54
E	찜닭 + 순살치킨	\$43	\$55
F	2치킨	\$36	
G	3치킨	\$54	

(714) 278-1090 화~일 3pm~8pm
매주 월요일 휴무
2009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3

TANG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설렁탕 / 도가니탕
감자탕 / 선지해장국
뚝배기 불고기
순대접시 / 순대전골
순대볶음 / 감자탕 전골
설렁탕 육수 판매 \$6.99

돼지국밥 갈비탕 육개장
족발 보쌈 감자탕

부ENA팩점 Open: 10am~9pm
714. 266. 0309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 680. 9550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